

쇼핑객 몰려들고

나주에 초대형 프리미엄 아울렛 생기면

상권은 빨려든다

김동찬 광주시의원, 1100명 여론조사

‘쇼핑 의향 있거나 관심’ 75%...반경 30~40km ‘블랙홀’

오는 2017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인근에 초대형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서면 광주지역 상권이 초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동찬(새정치·북구 5)은 15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2017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인근에 개점 예정인 전세계 사이먼 아울렛은 광주에서 불과 20여 분 거리로, 광주상권은 이 초대형 아울렛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전망은 자신이 광주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에 대형 아울렛이 입점하면 방목해 쇼핑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606명(55%)이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220명(20%)이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5%가 세계적 브랜드와 국내 유명 브랜드 입점에 대해 많은 기대감이 있는 셈이다.

특히 광주시민들의 쇼핑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나주에 아울렛이 들어설 경우 광주지역 백화점과 아울렛 매장, 유명 의류브랜드 매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광주시민들이 주로 찾는 쇼핑 장소는 백화점(37%)과 아울렛

(31%), 전문매장(18%) 순이었으며, 가장 많이 찾는 쇼핑 품목은 의류가 4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쇼핑객수는 한 달에 1~2회가 770명(70%)로 가장 많았고, 3회 이상도 220명(20%)이었다.

반면, 재래시장을 방문한다는 시민은 9%에 불과해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형 아울렛이 운영 중인 경기도 파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서, 부산은 울산, 마산, 대구, 창원에서까지 고객이 몰려들 정도로 쇼핑 지형이 바뀌었다”며 “광주도 마찬가지로 2곳의 아울렛 등을 비롯한 지역 중소형 상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형 아울렛 입점 광주시가 주차장 건립, 상인교육, 온누리 상품권판매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에 일시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영세상인, 골목상인들의 밥그릇마저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세계 사이먼은 무안~광주 고속도로 나주 나들목 인근에 30만여㎡ 규모의 초대형 교외형 아울렛 건립을 추진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 대통령, 이탈리아 도착... 밀라노 아세회의 참석차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저녁(현지시간) 이탈리아 바레스 말펜사국제공항에 도착. 메르쿠리 주한이탈리아 대사 등 환영이나 인사들의 영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대표·시진핑 중국 주석 악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6차 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가장 최적의 틀”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선공약 예산 반영 광주·전남 ‘광역단체 최하위’

광주 23%·전남 10% 그쳐

대구 89%·경남 93% 대조

주승용 의원 자료 분석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반영에서도 광주와 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여수)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중 내년도 예산반영률이 광주와 전남이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6~8개 분야를 선정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건설 등 7개 분야에 총 4262억6천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3840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신청액의 23%인 865억원에 그쳤다.

전남의 경우도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등 7개 분야에 총 82262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지만 내년도 예산 반영액은 전남도가 신청한 8580억원의 10%(837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대구는 7개 분야 12조8319억원의 공약사업 예산 가운데 내년도 반영액이 신청액 대비 89%인 4294억원에 달했다. 경북도의 경우도 7개 분야 44조8064억원을 공약해 내년 예산에 신청액 대비 65%인 3895억원이 반영됐다. 경남의 경우에는 7개 분야 8조8906억원을 공약해 내년 예산에 신

■ 2015년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국비 예산반영 현황

시도	사업수	총사업비	신청액	반영액	비율	경기	8	279.172	1.310	1.234	94
광주	7	46.296	3.840	865	23	인천	7	31.862	2.102	2.122	101
전남	7	80.262	8.580	837	10	대전	7	111.079	4.569	4.414	97
대구	7	128.319	4.850	4.294	89	충남	8	240.198	1.891	1.081	57
경북	7	448.064	5.956	3.895	65	세종	1	1.000	43	43	100
부산	8	184.201	2.497	805	32	충북	7	77.546	1.750	1.134	65
울산	8	31.245		295		제주	6	22.488		1.395	
경남	7	88.906	2.747	2.549	93	전북	7	161.269	8.644	6.878	80
강원	8	62.841	96	9.283	9670	평균		124.672	3.491	2.570	70

* 울산, 제주는 신청액을 제출하지 않아 반영률 없음.
* 강원도의 반영률이 높은 것은 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 예산 9.200억원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반영함으로써 반영률이 급등한 것임.

청액 대비 93%인 2549억원이 반영됐다.

전국 시·도별 평균 반영액은 2570억원, 평균 반영률은 70%로, 광주·전남은 이에 크게 뒤처진다.

주승용 의원은 “대선공약사업 추진에

서도 호반 소외가 이뤄지고 있다”며 “광주·전남 대선공약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차별적으로 편성돼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부-교육청 ‘교육예산’ 평행선

최경환·황우여 “누리과정 차질없이” vs 시·도교육감협 “불가”

정부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편성하라고 압박하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던 시·도교육감들은 “중앙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는 만큼 예산편성 불가 결정도 바뀔 게 없다”고 밝혀 교육예산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회견을 열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

해 양 부처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 총액의 20.27%를 배정하도록 법률에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고 대신 시도 교육청의 재량 사업을 줄이고 그로써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 발행 등의 수단으로 충당하라는 의미다.

건강·외모 직업 종사자 “내 미래 밝다”

고용정보원 재직자 조사, 마취 통증과·피부과 의사 등 상위

건강·외모와 관련된 직업의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유망성’을 높여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784개 직업의 종사자 2만349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3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를 통해 산출한 직업 유망성 점수를 15일 공개했다.

직업 유망성은 현직 종사자가 자기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 가능성, 고용 안정성 등의 항목에 대해 느끼는 태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고령화와 소득증가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위 20위 안에 10개가 건강과 외모 관

련 직업들이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마취 통증과 의사(87.6점)를 비롯해 피부과 의사(87.2점) 성형외과 의사(85점) 심리학 연구원(84.4점) 임상심리사(82.8점) 등이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변호사(82.2점), 온실가스 인증 심사원(82.2점), 회계사(81.9점), 노무사(81.9점), 수의사(81.7점), 통역가(81.1점), 입학 연구원(80.9점)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고용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한 직업으로는 약사, 마취 통증과 의사, 안과 의사 순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3000t급 잠수함 여군 탑승 추진...허용엔 세계 10번째

해군은 15일 여군 인력의 확대에 따라 3000t급 잠수함에 여군이 탑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2020년대에 확보할 3000t급 차기 잠수함(장보고-III)의 집실과 화장실 등을 여군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2017~18년에 잠수함 승조 여군 인력을 미리 선발해 임무 수행을 위한 양성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해군 잠수함에 여군이 근무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등 9개국으로, 우리 해군은 10번째로 잠수함 여군 승

조를 허용하는 국가가 되는 셈이다.

해군사관학교에는 1999년에 처음으로 여군사관생도(57기)가 입학했고 2003년 해사 여성도가 소위로 최초 임관했다.

현재 해군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은 이지스구축함(DDG)을 비롯해 구축함(DDH-I-II), 호위함(FFG-FF), 초계함(PCO), 유도탄고속함(PKG) 및 고속정(PKM) 등 수상함에 승조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최초로 여성 고속정(150t급) 정장이 보직된 이래 지금까지 17명의 여군 고속정 지휘관이 배출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가격할인 행사

2개월+1개월 행사 **총3개월 25만원**
4개월+2개월 행사 **총6개월 45만원**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감정원 감정가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 매매가려 상담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868-5151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이사항만 두경, 현우 하연준

5,000만원 경품 1,479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 신청기간: 2014년 10월 24일까지
- 응모대상: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이상 신청, 기존 유지 고객
- 응모권교부조건: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 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경품 안내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3등	제습기	9명
4등	쿠쿠압력밥솥	12명
5등	자전거	12명
6등	생활용품세트(대)	90명
7등	생활용품세트(중)	150명
8등	아차상	1200명

* 6등까지는 참석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화산지점 364-7557